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 연주 활동 유형 분석

Analysis of Instrumental Performance Activity Types i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for Grades 3-4 based on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추상희*

Sanghee Choo 

초록 본 연구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연주 활동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7개 출판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주 활동의 성취 기준, 음악 요소,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식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교과서는 기초 음악 요소와 바른 자세 및 주법을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구성했으나, 활동 유형과 학습 접근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일부 교과서는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을 강조한 반면, 다른 교과서는 연주 기능 습득과 음악적 표현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평가 방법은 전반적으로 실기평가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연주 활동의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초등 음악교육에서 통합적·실천적 연주 활동의 학습 설계를 위한 기초 정보와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초등 음악교육, 음악 교과서, 연주 활동, 교수·학습 방법, 2022 개정 교육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performance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3rd and 4th-grade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It aim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effective support measures for the future application of the new curriculum.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a comparative analysis of seven different publishing companies' textbooks, focusing on achievement standards, musical elements,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assessment approaches related to performance activiti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ll textbooks structured performance activities around basic musical elements and correct posture and technique. However,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activity types and learning approaches. While some textbooks emphasized student-participatory activities, others focused on acquisition of performance skills and enhancement of musical expressive ability. Furthermore, assessment methods were generally presented with a focus on practical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the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pres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strumental performance activities. It also seeks to contribute basic information and practical resources for designing integrated and practical performance activities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Key words: elementary music education, music textbooks, performance activiti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2022 Revised Curriculum

* First author, E-mail: flutesh@cau.ac.kr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usic, Department of Orchestral Instruments, 4712 Seodongaero, Daedeok, Anseong, Gyeonggi,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5, Reviewed (Revised): 31 December 2025 (1 February 2026), Accepted: 6 February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연주 활동은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필수적인 교수·학습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주 활동은 초등 음악 수업에서 학습자의 음악적 역량을 폭넓게 형성하고, 가창과 기악 연주 활동을 포괄하는 수행 중심의 학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주 활동이 단순한 연주 기술의 습득을 넘어 음악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구조화하도록 도와주며, 소리를 변별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손의 미세 운동 기능 등 인지적·신체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2013; Kim & Yang, 2013; Lee, 2020; Reybrouck & Schiavio, 2024; Song, 2015).

연주 활동의 맥락에서 가창과 기악 연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음악적 경험을 확장하며, 학습자의 사회적 역량 함양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된다. 먼저 가창 활동은 ‘목소리’라는 직접적 매체를 통해 음정과 리듬, 호흡과 발성의 기초를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가사와 선율을 결합해 음악적 의미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음악적 이해와 표현 역량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Krüger Bridge, 2025). 한편 기악 연주 활동은 개인의 기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합주와 같은 공동 수행 과정에서 소리를 조율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협동심과 배려심, 소속감과 자아 효능감의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Yang, 2013; Lee, 2020).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소리를 조율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우고, 집단 성취감을 통해 소속감과 자아 효능감을 증진시키게 된다(Kim & Yang, 2013; Lee, 2020). 결과적으로, 연주 활동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러한 긍정적 정서와 사회성의 발달은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 태도 및 자신감 향상이라는 효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Choi, 2014; Jo, 2015; Zhang, et al., 2024).

초등학교 음악 수업 내 연주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첫째는 기악 지도 방법론 및 교수 내용에 대한 분석 연구로 효율적인 기악 교수 방법의 탐구, 악기의 활용 방안,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Choi, 2012; Hwang & Ham, 2015; Kim, 2016; Lee & Hwang, 2002)로 교육의 현장에서 연주 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음악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둘째는 연주 활동이 학생들의 인지 및 심리·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Choi & Min, 2021; Kim & Moon, 2025; Lee & Hwang, 2025; Park & Moon, 2022)들로 학업 성취도, 정서적 안정, 자기효능감, 사회성 함양 및 치료적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주 활동이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학생

들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학습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적 매개 체임을 입증하고 있었다. 셋째, 현행 교육 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 이는 음악 수업의 문제점과 교사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 제시를 포함하고 있었다(Hyun, 1997; Kang & Choi, 2016).

이는 이론적 탐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음악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과 연주 활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부각된 디지털 기술 기반과 관련한 연구들로 온라인 학습 경험, 하이브리드 모델, 스마트 악기 및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다(Biasutti et al., 2022; Park et al., 2021). 이 연구들은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응하여 음악 교과에서의 연주 활동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기술 통합을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의 음악 교과 연주 활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 학술적 노력들은 초등 음악 교과 내 악기 연주 활동이 단순히 교과 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교육적 요소로서 기능함을 입증하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활동으로서 그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다.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전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내용 구성과 영역 체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었다. 우선 2015 개정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제시되었던 ‘생활화’는 2022 개정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전반에 걸쳐 녹아져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일상 속 음악적 경험과 성찰이 특정 단위이나 음악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연주·감상·창작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Park, 2023).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표현·감상·생활화’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2022 개정에는 이를 ‘연주·감상·창작’이라는 새로운 세 영역으로 재편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표현’ 영역의 일부로 다루어지던 연주 관련 성취 기준을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함으로써, 연주의 교육적 비중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Jang et al., 2023; Ministry of Education, 2022).

정리하면, 2022 음악과 교육과정은 영역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생활화’를 통합의 관점으로 재배치하고, ‘연주·감상·창작’의 영역의 성격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Park, 2023). 더 나아가 능동적 학습을 중시하는 관점에 따라 학생의 삶 속 음악 활동에서 교과 역량과 핵심 아이디어, 영역·내용 요소, 성취 기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의 ‘가치·태도’와 관련된 범주는 수업 활동의 초점이 단순한 기능 연습

을 넘어,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음악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변화로 볼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Park, 2023; Yang, 2023).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2022 교육과정이 제시한 목표와 성취 기준이 실제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연주 활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화 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음악 활동이 독립 교과가 아닌 통합 교과인 ‘즐거운 생활’에 포함되어 있어, 연주 영역을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반면 3~4학년부터는 음악이 독립 교과로 편성되며,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연주 영역 성취 기준이 학년군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3~4학년은 1~2학년에서 형성된 기초적 음악 경험을 바탕으로 연주 기능과 기본 음악 요소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음악적 이해를 심화하는 시기이며, 5~6학년의 보다 확장된 연주 활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학년군으로서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위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년이다 (Park et al., 2025; Yang et al., 2024).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연주 영역이 3~4학년 음악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교수·학습 설계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주 영역의 성취 기준과 교육과정의 취지가 교과서 구성과 연주 활동 유형 및 특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 수업 설계와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II.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연주 영역

1. 연주 영역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의 체계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3가지 범주와 그에 따른 학년별 내용 체계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연주, 감상, 창작 영역별로 핵심 아이디어의 원리에 ‘연주’ 영역에 초점을 두어 내용 체계의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Table 1>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Performance domain - Content framework and achievement standards(Ministry of Education, 2022)

Key Ideas	• Music is a form of expression that conveys human feelings, thoughts, and experiences through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various sounds, following its own unique principles and methods.
	• Individual or collaborative music performance manifests as a diverse process of action, shaped by human sensibility and socio-cultural background.
	• Humans experience and communicate through music in daily life by utilizing various musical media and modes of expression.

<Table 1>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주’ 영역에서 제시한 핵심 아이디어연주 활동의 본질과 과정, 그리고 생활화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먼저, 음악은 내적 경험인 느낌이나 생각, 경험을 고유한 원리와 구조에 따라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으로 구체화하는 표현의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주 과정의 자체는 개인적 혹은 협력적 활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연주자의 감수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폭넓은 행위 양상을 나타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 매체와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과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위를 연주의 확장된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는 연주 활동을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창의적 표현, 문화적 이해, 그리고 공동체적 소통을 아우르는 통합적 학습 경험으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Table 2>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연주 영역의 범주와 내용요소, 그리고 성취 기준을 구성한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Table 2> Performance domain: Categories, content elements, achievement standards, and musical elements (Ministry of Education, 2022)

Category	Content elements	Achievement standards
Knowledge & Understanding	• Achievement standard	[4M01-01] Learn correct posture and playing techniques to sing or play an instrument.
	• Basic musical elements	[4M01-02] Utilize basic musical elements to sing or play an instrument and describe the feelings evoked.
	• Music in daily life	[4M01-04] Experience music in daily life and participate with interest in performing.
Process & Skills	• Singing or playing an instrument	[4M01-01] Learn correct posture and playing techniques to sing or play an instrument. [4M01-02] Utilize basic musical elements to sing or play an instrument and describe the feelings evoked.
	• Presenting and discussing	[4M01-02] Utilize basic musical elements to sing or play an instrument and describe the feelings evoked.
	• Expressing through body and play	[4M01-03] Enjoy music through bodily expression or play that accompanies singing and instrument performance.

<Table 2> Continued

Category	Content elements	Achievement standards
Values & Attitudes	• Enjoyment of performance	[4M01-03] Enjoy music through bodily expression or play that accompanies singing and instrument performance.
	• Interest in performing	[4M01-04] Experience music in daily life and participate with interest in performing.

연주 영역은 학생이 음악을 이해하고 실제로 수행하며 음악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습 활동을 포함하며, 이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지식·이해]는 학생이 연주 활동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음악적 이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연주 자세와 주법을 익혀 올바른 연주 자세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안정적인 연주와 표현력을 향상하도록 하였으며, 기초적인 음악 요소 학습을 통해 음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음악적 의미를 담은 연주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느낌과 다양한 소리를 경험하며 음악적 정서와 음색을 연주에 반영하고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하며, 생활 속의 음악 경험을 연주 활동과 연결하여 학생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과정·기능]의 범주는 학생이 습득한 음악적 이해를 실제 연주 활동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노래 부르기과 악기 연주를 통해 바른 자세와 주법을 적용하며 연주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초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음악적 의미를 담은 표현을 확장하였다(Jang et al., 2023; Ministry of Education, 2022; Yang, 2023).

또한 발표와 이야기를 통해 연주의 경험을 언어로 공유하고 음악적 사고를 다른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이해와 표현 능력을 심화하였으며, 신체로 표현하고 놀이하기 활동은 음악과 신체적 경험을 결합하여 음악을 몸으로 체험하며, 이를 통해 연주를 즐기는 태도와 참여 동기를 높이고 있다. [가치·태도]는 학생이 음악을 수행하는 단순히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연주를 즐기고 관심을 가지는 정서적·태도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신체 표현과 놀이를 결합한 활동을 통해 음악적 즐거움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음악 경험을 연주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연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활동들은 학생들이 연주 과정에서 기술적 능력, 음악적 이해, 감각적 표현과 정서적 반응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Jang et al., 2023; Yang, 2023).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연주 영역의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성취 기준의 교육적 의미와 수업 적용 시 유의점, 관련 음악 요소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이에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연주 영역의 4가지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Explanations)과 적용 시 고려사항(Considerations for Application), 핵심 음악 요소(Key Musical Elements)를 통합하여 다음의<Table 3>에 정리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Table 3> Explanations, considerations for application, and key musical elements of the performance domain achievement standards(Ministry of Education, 2022)

Category	[4M01-01]	[4M01-02]	[4M01-03]	[4M01-04]
Explanations	Focuses on learning correct posture and basic performance techniques, aiming to establish the essential foundation for efficient sound expression and full-scale musical performance activities.	Emphasizes the expression of basic musical elements, aiming to meaningfully connect musical concepts with practical activities through hands-on experiences.	Encourages exploration of variou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expression through bodily movement or play, with an emphasis on linking musical activities to broader non-musical contexts.	Based on singing and performance experiences, it focuses on exploring ways to apply music in daily life and encourages students to take an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e in actual performance activities.
Considerations for application	Students freely explore sounds and develop a basic understanding of playing techniques to experience their inherent principles.	Based on fundamental musical skills, activities are designed to extend into bodily expression, play, and storytelling, connecting musical concepts with practical experiences.	Based on basic musical skills ([4M 01-02]), activities are designed to extend into bodily expression, play, and other forms, connecting musical concepts with practical engagement.	Through a variety of daily activities, students are encouraged to cultivate musical sensitivity, using attitudes and interests as evaluation criteria, and promoting habitual engagement through checklists or music journals.
Key musical elements	- Voice - Sounds of objects - Timbre of percussion instruments (related to exploration of playing techniques)	- Beat and meter - Rhythmic patterns - Dynamics - Tempo - Pitch (and other elements related to accurate musical expression)	- Form - Ornamentation - Jangdan / Rhythmic cycles - Timbre (related to exploration and expansion of characteristics)	- All musical elements (comprehensive experience) - Dynamics - Tempo - Timbre (related to expression and attitude)

<Table 3>은 성취 기준별로 해설, 적용 시 고려사항, 핵심 음악 요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각 성취 기준이 음악 수업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이를 종합해 보면, 연주 활동의 학습은 기초 기능의 형성에서 출발하여 음악적 표현의 확장과 특성 탐색을 거쳐, 생활 속 참여와 태도 형성으로 나아가는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성취 기준 [4음01-01]은 바른 자세와 주법은 연주 활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체적

준비의 단계로 볼 수 있다. 바른 자세와 기초적인 연주법의 숙달에 주안점을 두며, 학습자가 자유로운 소리 탐색을 통해 악기 본연의 음색을 발현하는 원리를 터득하도록 학습의 출발점으로 설정하였다. 성취 기준 [4음01-02]의 핵심은 앞선 성취 기준의 숙달된 기초 기능을 기반으로 음악 개념과 실제 표현 활동 간의 상호 연결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준은 박, 리듬꼴, 셈여림 등 기초 음악 요소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신체 표현, 놀이 등의 비음악적 매개체를 통합하여 학습자에 통합적 사고력 함양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성취 기준 [4음01-03]은 [4음01-02]에서 확립된 기초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주 특성을 탐색하고 확장하는 심화의 단계로 형식, 시김새, 장단 등 음악의 본질을 규정하는 요소들을 학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창의적 매체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학습자의 심미적 감수성 및 음악적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취 기준 [4음01-04]는 연주 영역에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기준들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주변 생활 속에서 음악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자발적인 참여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모든 성취 기준의 위계를 완성하며, 연주 교육이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최종적인 목표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연주 활동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내용 체계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주 영역에서 교수·학습의 방향과 학습 방법, 평가의 방향과 방법, 평가 분류 및 절차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연주 영역의 교수·학습 및 평가 체계를 교수·학습 방향, 학습 방법, 평가 방향, 평가 방법, 평가 분류, 평가 절차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의 <Table 4>과 같다(Jang et al., 2023; Ministry of Education, 2022).

<Table 4>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framework of the performance domain(Ministry of Education, 2022)

Category	Content
Teaching and learning direction	Design activities using a variety of musical pieces that consider educational, artistic, cultural, and practical values, enabling learners to enjoy singing and playing instruments connected to their daily life and to communicate with the community.
Learning methods	Actively engage in learning b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musical pieces, mastering instrumental techniques and vocal skills, reflecting on personal musical expression, and cultivating respect for others' performances.

<Table 4> Continued

Category	Content
Assessment direction	Reflecting the nature of music, assessment should balance both the process and the outcome of performance, integrating knowledge & understanding, skills & processes, and values & attitudes. Assessments are formative, ongoing, and personalized, considering students' developmental stage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sults are fed back into teaching and learning to directly enhance students' performance competencies.
Assessment methods	Utilize diverse methods such as performance assessment, observation, portfolio assessment, self-assessment, peer assessment, and online assessment, ensuring that activities like singing and playing instruments reflect knowledge & understanding, skills & processes, and values & attitudes to foster comprehensive competencies.
Assessment classification	By criteria: relative assessment, absolute assessment By purpose: diagnostic, formative, summative assessment By assessor: teacher assessment, student assessment (self-assessment, peer assessment) By format: written assessment, performance assessment
Assessment procedure	Set objectives → Define domains → Select and prepare tools → Conduct assessment → Process and interpret results → Apply results to teaching and learning

연주 영역의 교수·학습은 다양한 악곡이 지닌 예술적·문화적 의미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삶과 연결된 실천 경험을 제공하며, 노래와 악기 연주를 통해 공동체적 소통과 참여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자는 악곡의 특징과 필요한 주법, 표현 기법을 능동적으로 익히고, 평가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형성 중심 평가를 통해 진행된다. 평가 방식은 실기, 관찰, 포트폴리오, 자기,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며,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이를 분석 근거로 삼아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연주 활동이 실제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 연주 활동 분석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를 대상으로, 현재 초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정 교과서 7종(동아, 비상, 아이스크림, 아침나라, YBM, 지학사, 천재)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1~2학

년의 경우 음악 활동이 독립 교과가 아닌 통합 교과 ‘즐거운 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어, 연주 영역을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반면, 3~4학년부터는 음악이 독립 교과로 편성되면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연주 영역의 성취 기준이 학년군,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3~4학년은 1~2학년에서 형성된 기초적인 음악 경험을 토대로 연주 기능과 기본적인 음악 요소를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음악적 이해를 심화하는 동시에, 5~6학년의 보다 확장된 연주 활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학년군으로서 교육과정 전반의 연계성과 위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ark et al., 2025; Yang et al.,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연주 영역이 실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교수·학습 설계와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5>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 목록과 집필진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5> Grade 3-4 Music textbooks and authors unde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extbook		Author(s)
Dong-a	3-1, 3-2, 4-1, 4-2	Mi-young Choi et al.
Visang	3-1, 3-2, 4-1, 4-2	Dae-chang Joo et al.
I-Scream	3-1, 3-2, 4-1, 4-2	Soon-i Jo et al.
Achimnara	3-1, 3-2, 4-1, 4-2	Yoon-hee Seung et al.
YBM	3-1, 3-2, 4-1, 4-2	So-young Yang et al.
Jihaksa	3-1, 3-2, 4-1, 4-2	Jeong-mi Heo et al.
Cheonjae	3-1, 3-2, 4-1, 4-2	Eun-ah Choi et al.

2. 분석 기준 및 방법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연주 영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명확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연주 활동이 성취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제시된 음악 요소의 개념과 난이도가 학년 수준에 부합하는지, 영역별 내용 체계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음악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활동 설계, 타 교과와의 연계, 평가 방법의 다양성과 균형성도 함께 분석하여 연주 활동이 교육과정의 방향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의 근거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준거에 기반한 분석이라도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자는 분석 틀과 해석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음악교육 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전문 연주자에게 분석 기준과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분석 내용이 교육과정의 취지와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Table 6>은 3~4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연주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근거와 실제 분석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분석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표의 구성은 내용기반(content basis), 역량 및 활동 설계(competency development and activity design), 평가의 적절성(assessment appropriateness)의 세 범주를 중심으로 교과서 연주 활동을 다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분석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Table 6> Analysis criteria and objectives

Analysis criteria		Objective
Content basis	Content framework	Does the unit/topic organization reflect the curriculum's content framework in a balanced way?
	Learning standards	Are the learning standards for the performance domain adequately implemented in each unit?
	Musical elements	Are the types and levels of musical elements addressed through performance activities appropriate for grades 3-4?
	Content organization	Does the textbook cover the curriculum's content framework in a balanced manner?
Competency development and activity design	Music competencies	Are the activities designed to effectively foster students' music competencies?
	Cross-curricular learning	Are integrative learning activities with other subjects appropriately linked?
Assessment appropriateness	Assessment analysis	Are various assessment methods presented in a balanced manner without bias?

3. 분석 결과

다음의 <Table 7>은 7종의 교과서(동아, 비상, 아이스크림, 아침나라, YBM, 지학사, 천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각 교과서에서는 제재곡의 수와 연주 활동 유형 구성에는 다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7종의 교과서를 통해 확인된 연주 활동의 제재곡

수는 총 291이다. 다만 표의 총합계가 548건으로 제시된 것은, 제재곡 수를 1:1로 단순 집계한 값이 아니라, 한 제재곡 안에 제시된 연주 관련 활동을 활동 단위로 중복 포함되어 집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주 활동은 15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3~4학년 단계에서 기본적인 연주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의 방향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연주+감상’, ‘연주+창작’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며, ‘연주+감상+창작’의 결합된 통합 활동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적 음악 활동의 유형이 아직 3~4학년의 수준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Kim & Kim, 2024; Kim, 2025).

<Table 7> Textbook structure and types of performance activities

Category		Performance activity types					
Textbook	Repertoire	Performance	Performance + Listening	Performance + Creation	Performance + Listening + Creation	Total	Percentage
Dong-a	36	23	3	8	0	70	13.23
Visang	35	20	1	11	0	67	12.45
I-Scream	35	17	2	11	0	65	11.67
Achim nara	45	20	3	7	0	75	11.67
YBM	47	40	1	9	0	97	19.46
Jihaksa	44	25	6	15	7	97	20.63
Cheonjae	49	12	5	10	1	77	10.89
Total	291	157	21	71	8	548	100

한편 교과서의 단일 구조는 공통적으로 학년별 4단원으로 제재곡 수와 연주 활동 유형의 구성은 학생들의 정서와 음악적 발달에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계절이나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곡을 선정하고 있었으며 그 중, 천재교과서는 49개의 가장 많은 제재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연주 활동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교과서별 단일 연주 활동은 YBM(40건)으로 네 가지의 연주 활동의 유형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학사(7건)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연주+감상+창작’의 종합적인 활동을 제시해 다양하고 확장된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3학년 2단원 <모두가 지구를 지켜요> 차시는 환경을 주제로 연주+감상+창작을 통합하여 구성되었다. 나아가 환경 보호 실천이 음악 활동과 연계되면서, 학생들이 음악을 교실 안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경험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히 연주 활동이 ‘기능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을 통해 학생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 표현하며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학습의 경험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나머지 교과서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연주 활동 중심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음악 교과서에서 연주 활동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감상과 창작이 연주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활동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의 논의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타 활동 및 타 교과와의 연계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 또한 단일 활동에 머무르기보다 여러 활동을 연결한 통합적 구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Kim, 2007; Kim & Kim, 2024; Kim, 2025). 이는 연주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연주+감상+창작’이 결합된 종합적 활동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통합적 연주 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균형 잡힌 연주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Table 8>은 교과서별 연주 영역의 성취 기준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연주 영역의 성취 기준 가운데 [4음01-02]가 152회(4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음악 교과서가 가창 및 기악과 같은 실기 중심 활동을 핵심 학습 경험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어 [4음01-01]이 92회(24.9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바른 연주 자세나 기본 음악적 요소의 표현과 같은 기초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연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편찬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의 성취 기준의 빈도(369회)를 기준으로 할 때, 연주 영역인 [4음01-01], [4음01-02], [4음01-03]이 전체의 약 86.17%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교과서 전반이 연주 실기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음01-02]는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며 연주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구성은 학생들에게 기초 음악 기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데 유익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으로 해석된다. 또한, 7종 교과서 간 성취 기준 활용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지학사(71회)로 가장 많은 성취 기준을 제시한 반면, 천재교과서(43회)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두 교과서 간의 활용 빈도의 차이는 약 두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이는 교과서별 성취 기준 반영의 구성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Table 8> Comparison and analysis of textbooks by achievement standards

Category	Textbook								
Achievement standard	Dong-a	Visang	I-Scream	Achim nara	YBM	Jihaksa	Cheonjae	Total	Percentage
[4M01-01]	14	7	10	10	21	21	9	92	24.93
[4M01-02]	27	16	17	20	23	29	20	152	41.19
[4M01-03]	6	18	12	8	9	12	9	74	20.05
[4M01-04]	8	6	10	6	7	9	5	51	13.83
Total	55	47	49	44	60	71	43	369	100

다음의 <Table 9>는 교과서별 음악 요소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모든 교과서에서는 ‘박·박자’가 86회(20.77%)로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다. 초등 3~4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박·박자’가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기본적인 시간 감각과 신체적 리듬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방향과 관련이 있다. ‘박·박자’는 리듬 학습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 개념으로, 이를 충분히 이해할 때 이후에 제시되는 리듬꼴이나 빠르기 등 확장된 리듬 요소를 학생이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가 ‘박·박자’ 활동을 연주 활동의 중심에 두는 구성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기초 리듬 감각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려는 의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Kim, 2020; Park, 2023).

두 번째로 많이 제시된 음악 요소는 ‘간단한 리듬꼴’로 78회(18.84%)였으며, 이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리듬 학습을 핵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장 적게 다루어진 ‘빠르기’는 12회(2.9%)로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나, 일부 음악 요소가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교과서들은 전반적으로 기본 요소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적인 음악 기능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나, 음악 요소간 제시 비중에는 뚜렷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교과서의 연주 활동이 ‘박·박자’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등 음악 교과서에서는 ‘박·박자’ 요소가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반면, 선율·형식·화성·음색 등 다른 음악 요소는 제시 빈도가 낮거나 리듬 중심 활동의 보조 요소로 제한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Jung, 2020; Kim, 2020; Lee, 2023). 이러한 편중된 양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22 개정 교과서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구성이 반복될 경우 학습자는 음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경험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음악 경험이 ‘박·박자’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3~4학년의 교과서에서는 ‘박·박자’ 중심의 기초 리듬 학습을 유지하되, 선율·

형식 · 셈여림 · 음색 등 다양한 음악 요소가 연주 활동 속에서 보다 균형 있게 반영되어 통합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활동 구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Table 9>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ntent categories and content elements in Music textbooks

Category	Textbook								
Music element	Dong-a	Visang	I-Scream	Achim nara	YBM	Jihaksa	Cheonjae	Total	Percentage
Beat & Meter	28	8	7	16	13	10	4	86	20.77
Simple rhythmic patterns	13	9	6	16	14	15	5	78	18.84
Note duration	2	6	2	8	1	10	5	34	8.21
Sound harmony	12	7	8	10	11	8	4	60	14.49
Dynamics	11	5	3	7	9	3	3	41	9.9
Timbre	7	5	8	2	3	15	2	42	10.14
Pitch	2	3	4	7	1	8	4	29	7
Melody movement	2	7	2	2	1	2	1	17	4.11
Form	1	2	2	6	2	1	1	15	3.62
Tempo	2	1	-	4	3	1	1	12	2.9
Total	80	53	42	78	58	73	30	414	100

다음의 <Table 10>은 교과서에 포함된 연주 활동의 내용 체계의 범주와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식 · 이해]의 ‘기초적인 음악 요소’는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요소로 총 143회(19.92%) 다루어졌으며 음악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집중되어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 · 과정]의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기’는 184회(25.7%)로 전체 요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3~4학년 음악교육에서 실기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 태도]의 ‘연주를 즐기는 태도’ 74회(10.32%)로 학생들이 음악을 즐기고, 연주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실기 중심의 학습과 기본적인 음악 교육의 요소들이 잘 결합되어 있어, 학생들이 기본적인 음악 능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0> Analysis of content framework categories and elements of performance activities in grade 3-4 Music textbooks unde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Category		Textbook								
Content Element		Dong-a	Visang	I-Scream	Achimnara	YBM	Jihaksa	Cheonjae	Total	Percentage
Knowledge & Understanding	Basic musical elements	28	17	17	19	23	24	15	143	19.92
	Posture and performance technique	10	5	10	17	14	7	8	71	9.9
	Music in daily life	2	6	8	11	11	9	4	51	7.12
	Feelings and various sounds	7	2	3	3	12	2	-	29	4.04
Processes & Skills	Singing or playing instruments	33	26	28	15	39	29	14	184	25.7
	Expressing through body movement and play	9	22	11	4	6	8	6	66	9.2
	Presenting and discussing music	4	17	6	5	10	1	5	48	6.69
Values & Attitudes	Enjoyment of performance	2	11	19	3	24	10	5	74	10.32
	Interest in musical performance	6	6	11	12	12	4	-	51	7.11
Total		101	112	113	89	151	94	57	717	100

다음의 <Table 11>은 교과서별 음악 교과 역량의 반영 방식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소통 역량은 총143회(26.89%)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감성역량이 총128회(24.06%)로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통 역량을 합창·합주와 같은 연주 활동에서 서로 간의 상호 조율, 의견 나누기, 발표 등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또한 감성 역량은 작품의 느낌을 표현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활동, 학생의 삶과 연결된 정서적 경험을 강조하는 활동에서 주로 구현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연주 활동이 타인과의 조율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감정과 정서적 표현을 촉진한다는 특성과 맞물려, 다수의 교과서가 학생의 소통의 역량과 감성의 역량 발달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공동체 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인 60회(11.27%)로 다뤄지고 있어 함께 연주하고 협력하는 활동보다는 개인적 연주 기술의 향상과 음악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협력적인 연주 활동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Table 11> Comparison and analysis of music competencies by textbook

Category	Textbook								
Music competencies	Dong-a	Visang	I-Scream	Achim nara	YBM	Jihaksa	Cheonjae	Total	Percentage
Sensitivity	18	20	17	15	24	28	6	128	24.06
Creativity	7	26	10	14	14	14	18	103	19.36
Self-directed learning	9	20	11	16	21	10	11	98	18.42
Communication	17	41	19	13	18	16	19	143	26.89
Community	3	19	4	22	4	4	4	60	11.27
Total	54	126	61	80	81	72	58	532	100

다음의 <Table 12>는 교과서별 타 교과 연계 학습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체육과가 37회(35.24%)로 가장 높은 연계 빈도를 보여 신체 표현을 활용한 연주 활동을 통해 리듬감과 신체 동작을 함께 신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 과학 등 다른 교과와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적어, 향후 보다 균형 있는 교과 간 연계를 통해 음악 학습 경험을 다각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Table 12> Comparison and analysis of cross-subject learning in Music textbooks

Category	Textbook								
Subject	Dong-a	Visang	I-Scream	Achimn ara	YBM	Jihaksa	Cheonjae	Total	Percentage
Physical edu.	7	3	7	2	7	11	-	37	35.24
Art	8	-	9	2	5	8	-	32	30.48
Korean	2	2	-	2	4	2	-	12	11.42
Social	1	1	-	-	-	-	-	2	1.9
Science	1	1	-	1	-	7	-	10	9.53
Moral	4	4	-	-	2	2	-	12	11.43
Total	23	11	16	7	18	30	0	105	100

다음의 <Table 13>은 교과서별 평가 방법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중, 자기 평가와 실기평가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평가 방법으로, 음악 교과서들이 실기 능력과 학생 스스로의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면담 평가나 토의·토론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여,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나 협력적 학습을 더욱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3> Comparison of assessment methods by publisher in grade 3-4 Music textbooks unde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Category	Textbook								
	Donga	Visang	I-Scream	Achim nara	YBM	Jihaksa	Cheonjae	Total	Percentage
Self	5	25	30	34	24	39	14	171	25.9
Performance	20	15	14	24	28	48	20	169	25.65
Observation	20	18	10	8	36	18	20	130	19.69
Partner	8	21	7	24	16	9	13	98	14.84
Online	3	10	3	-	1	-	1	18	2.73
Portfolio	2	5	2	-	6	-	2	17	2.57
Practical & Written	3	5	-	2	1	2	4	17	2.57
Oral assessment	2	7	2	-	-	2	-	13	1.98
Written/Essay	2	1	2	-	1	3	-	9	1.36
Project assessment	-	3	-	-	-	4	-	7	1.06
Report assessment	1	3	1	1	-	-	-	6	0.9
Discussion/ Debate assessment	-	4	-	-	-	-	-	4	0.6
Interview	-	1	-	-	-	-	-	1	0.15
Total	66	118	71	93	113	125	74	660	1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연주

활동을 대상으로 활동 유형, 성취 기준, 음악 요소,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측면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7종의 교과서가 제시하는 교수·학습 활동의 경향과 편차 등을 살펴 보았으며, 연주 중심의 실기 활동과 평가, 음악 요소의 균형, 교과 역량과 학습 활동의 통합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7종의 교과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의 연주 활동은 실기 중심의 활동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이 기초 연주 기능을 반복적으로 익히고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학년 군에서 기초 연주 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연주 활동이 학교 수업 안에서 음악을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교과서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활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연주 영역의 성취 기준 [4음01-02]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연주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교과서가 연주 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학생이 연주 기능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습득하는 경험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 기준이 특정 항목에 집중되는 경향은 성취 기준 간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는 각 성취 기준이 보다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다른 성취 기준들도 음악 수업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설계 원리를 정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 요소 구성에서는 ‘박·박자’, ‘간단한 리듬꼴’과 같은 리듬 중심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제시된 반면, ‘선율’, ‘형식’, ‘빠르기’ 등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초 리듬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연주 활동 속에서 음악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는 다양한 음악 요소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학생들이 연주 활동을 통해 음악의 구조와 다양한 음악 요소를 경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평가 방법 분석 결과, 교과서는 자기평가와 실기 평가를 중심으로 연주 기능의 습득 과정과 수행 결과를 확인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면담 평가나 토의·토론 기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여, 연주 활동에서 강조되는 소통과 협력의 경험, 공동체 음악을 만드는 활동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연주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의사 소통, 공동체적 협력을 능력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실기 능력 확인을 넘어 음악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습 경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행 교과서의 연주 활동은 기초 중심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성취 기준 적용의 균형, 음악 요소의 경험의 다양성, 평가 방식의 확장성에서는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개발에서는 연주 기능뿐 아니라 음악적 사고와 표현의 심화, 협력적 태도 형성, 그리고 교과 역량이 연주 활동과 평가로 연결되는 통합적 설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연주 활동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이 교과서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연주 활동 중심 수업의 설계와 평가 체계를 재검토하는 논의에 자료로 활용되고, 교육과정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교과서 구성 및 교수·학습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Biasutti, M., Antonini Philippe, R., & Schiavio, A. (2022). Assessing teachers' perspectives on giving music lessons remotely during the COVID-19 lockdown period. *Musicae Scientiae*, 26(3), 585-603. <https://doi.org/10.1177/1029864921996033>
- Choi, E. A. (2012). A study on the critical viewpoint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for music clas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3), 173-194. <https://doi.org/10.24211/tjkte.2012.29.3.173>
- Choi, E. A., Lim, Y. S., Choi, C. S., Kim, Y. J., Jeong, I. Y., Baek, J. H., Heo, Y., & Yang, B. H.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4*. Chunjae textbook.
- Choi, M. Y., Seok, M. J., Choi, Y. R., Jang, E. S., Park, J. M., Ryu, N. H., Jeong, J. H., & Kim, Y. J.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4*. Dong-a textbook.
- Choi, S. H. (2014). *Effect of student orchestra activity on the emotion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Focusing on Gyeongsangnamdo*.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Choi, S. Y., & Min, C. S. (2021). The effect of recorder performance on the self-efficacy of school Maladjusted student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7(4), 1-17.
- Heo, J. M., Cheon, E. Y., Choi, C. J., Song, J. H., Jeong, G. M., & Oh, S. H.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4. Jihaksa textbook.

- Hwang, Y. W., & Ham, I. A. (2015). Research on effective training of violin ensemble concert for an after-school program of an elementary school in Daejeon. *Journal of Music and Arts*, 5(2), 59-88.
- Hyun, K. S. (1997). Applying Orff method in Korean schools.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15, 122-154.
- Jang, G. J., Park, Y. J., & Oh, S. K. (2023).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in music based 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Uhga.
- Jang, H. W. (2013). Effects of music activities on motor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in the inclusion setting.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2), 287-308. <https://doi.org/10.34249/jse.2013.20.2.287>
- Jo, E. G. (2015). *Influences of orchestra activ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development of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ity*.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 Jo, S. Y., Han, Y. Y., Yoon, K. G., Kim, M. J., Chae, S. H., Kim, A. H., Byun, I. J., & Kim, Y. A.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4. i-Scream textbook*.
- Joo, D. C., Kim, H. S., Park, E. S., Yoo, H. Y., Kim, J. H., Lee, Y. S., Kim, H. S., & Choi, M. S.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4. Visang textbook*.
- Jung, Y. J. (2020). A study on exploring improvement and analyzing alternative material for elementary music creative activities centered on music element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5, 65-83. <https://doi.org/10.30832/JMES.2020.45.65>
- Kim, E. J. (2020). Analysis of Hierarchy of 'music elements and concepts' in elementary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3(2), 127-155. <https://doi.org/10.29221/jce.2020.23.2.127>
- Kim, E. J. (2025). Types of creative activities in the 2022 revised music textbooks for third- and fourth-grade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6(1), 1-17. <https://doi.org/10.20972/Kjee.36.1.202503.1>
- Kang, H. S., & Choi, M. H. (2016). Exploration of significance of pre-service early-childhood teachers' musical instrumental activity through musical fairy tal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5(3), 1-20.
- Kim, H. J., & Yang, E. A.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instrumental-ensemble music therapy program on improving relationship skills of children at a local community child center.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9(4), 75-96.
- Kim, J. I. (2007). A study on the integrated approach in elementary school music appreciation.

-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6, 71-89. <https://doi.org/10.30832/JMES.2007.6.71>
- Kim, M. H., & Moon, J. Y. (2025). The effects of musical instrument playing music therapy activities on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Mongolian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7(1), 79-96. <https://doi.org/10.21330/kjmt.2025.27.1.79>
- Kim, M. S., & Kim, J. H. (2024).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textbook by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activities with other subjects in music appreciation activities. *Educational Research*, 89, 23-34. <https://doi.org/10.17253/swueri.2024.89..002>
- Kim, S. K. (2016). An analysis on learning contents in the instrumental domain of elementary music textbooks for third-fourth graders.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8, 43-66.
- Krüger Bridge, S. (2025). Children's experiences of choral singing: Evaluating reflexive choir journals with primary school pupils. *Music Education Research*, 1-20. <https://doi.org/10.1080/14613808.2025.2565150>
- Lee, H. Y., & Hwang, E. Y. (2025). The effect of group therapeutic musical activities focused on instrumental playing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and peer attachment in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25(1), 125-146. <https://doi.org/10.18253/kart.2025.25.1.06>
- Lee, K. E. (2023). Exploring issue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related to music element of music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6(2), 145-165. <https://doi.org/10.29221/jce.2023.26.2.145>
- Lee, S. J., & Hwang, O. H. (2002). Teaching methods for music improvisation -Designed for improving primary school children's creativity. *The Music Research*, 28, 181-212.
- Lee, Y. S.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semble activities on youth's emotion and sociality*.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22). *Music curriculum*. No. 2022-33. [Supplement 2]. Ministry of Education.
- Park, J. H. (2023). Analysis of design principles and contents of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4), 45-66. <https://doi.org/10.30775/KMES.52.4.45>
- Park, J. S., & Moon, S. Y. (2022). The effects of structured instrument-playing for the elderly in residential care on their subjective happi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Music Therapy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3(1), 31-45. <https://doi.org/10.47858/>

kjmtpr.2022.3.1.31

- Park, S. I., Park, S. H., & Han, J. S. (2025). The analysis of the connections in the ‘Pleasant life’ in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subject and music subject for 3rd grade: Focusing on the music pieces. *Kor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4(1), 127-156. <https://doi.org/10.30775/KMES.54.1.127>
- Park, W. S., Park, J. H., & Lim, Y. M. (20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online class experience conducted with COVID-19.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2), 707-728.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2.707>
- Reybrouck, M., & Schiavio, A. (2024). Music performance as knowledge acquisition: A review and preliminary conceptual framework. *Frontiers in Psychology*, 15, 1331806. <https://doi.org/10.3389/fpsyg.2024.1331806>
- Seung, Y. H., Yoon, M. J., Kang, H. J., Park, K. O., & Kim J. E.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4*. Achimnara textbook.
- Song, J. H. (2015). A study on the music subject competency in the school music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4(4), 117-146.
- Yang, S. Y. (2023). Comparison of 2015 and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Kor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4(3). 331-354. <https://doi.org/10.5515/2/KERJ.44.3.331>
- Yang, S. Y., Lim, E. J., Lee, S. M., Park, J. Y., & Song, J. J. (202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usic education in ‘Pleasant life’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Kor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3(3), 115-134. <https://doi.org/10.30775/KMES.53.3.115>
- Yang, S. Y., Ha, Y. R., Kang, M. S., Kim, N. Y., Kim, S. H., Kim, H. A., & Song, S. G. (2025). *Elementary school music 3-4*. YBM textbook.
- Zhang, Q., Park, A., & Suh, K. H. (2024). Relationship between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Enjoyment of playing instruments scale. *Behavioral Sciences*, 14(9), 744.